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 디자인에 나타난 스페인 취향

김기숙·박주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전공 석사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

요약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는 시대가 지나도 불변하는 조형적 아름다움을 창조한, 패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의 디자인은 '스페인 취향'을 근원으로 하여 단순함과 절제된 실루엣으로 귀결되며 동시에 풍부하고 깊이 있는 예술성을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발렌시아가 디자인의 정서적 근원인 '스페인 취향'이 디자이너에 의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취향'의 사회학적인 개념을 '국가 취향'에 도입하여 '커다란 구조적 체계로서 스페인이 제공한 문화 자본이 국민 개인에게 승화되어, 지역의, 나아가 국가의 기호 및 선호로 자리 잡은 것'이라는 '스페인 취향' 개념을 파악하고, 스페인 문화 자본에 해당하는 역사, 지역성과 민속 복식, 예술, 민족성을 고찰·개별 특성을 범주화하여 화려, 웅장, 생동, 문화적 다양성, 민중성이라는 스페인 취향의 보편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발렌시아가의 디자인 특징으로는 호화로운 장식, 구조적인 실루엣, 강렬한 색감과 유동적 디테일이 발견되었으며, 화려, 웅장, 생동이라는 스페인 취향의 특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발렌시아가 디자인에 나타난 스페인 취향으로서 화려한 장식성, 웅장한 구조성, 생동적 색감과 디테일의 관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발렌시아가, 스페인 취향, 화려, 웅장, 생동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현대 패션에 획기적인 조형미를 부여한 디자이너로 평가되어온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Cristobal Balenciaga, 1895-1972)의 디자인은 ‘단순함’을 넘어 호화로운 극치, 극적인 공간감, 그리고 풍부한 색감이 한데 어우러져 예술적 아름다움을 뽐어내는 것으로 평가받는데, 이 예술성은 그의 조국인 스페인에 근원을 두고 있다. 스페인 취향은 발렌시아가 디자인 전 작품의 바탕에 흐르는 상징체계로서, 그의 디자인에 스페인 취향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선행연구¹⁾에서 제시된 바 있다. 한편 2010년 뉴욕의 퀸 소피아 스페니시 박물관(Queen Sofia Spanish Institute)에서는 『Balenciaga: Spanish Master』 전시로, 2011년 샌프란시스코의 미술 박물관(Fine Arts Museum of San Francisco)에서는 『Balenciaga and Spain』 전시로 발렌시아가 디자인과 스페인과의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발렌시아가 디자인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건축적인 형태미와 제작방식을 연구하는 데 국한되어, 착용자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디자이너의 미적 감성의 근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렌시아가 디자인의 정서적 근원인 스페인 취향을 규명하고 그의 디자인에 스페인 취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스페인 문화자본에 해당하는 스페인의 역사, 지역성과 민속 복식, 예술, 민족성을 고찰하여 스페인 취향의 특성을 도출하고, 발렌시아가 디자인의 특성과 이에 나타난 스페인 취향을 논의한다. 시대를 대표하는 역사적 디자이너의 작품 세계를 그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분석한 본 연구는 디자이너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디자이너의 새로운 작품분석방법을 제시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채택하였다. ‘취향’과 ‘스페인 취향’의 개념 도출은 사회학 관련 서적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연구하고, 스페인 취향과 발렌시아가 디자인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발렌시아가 작품과 관련된 국내·외 서적, 패션 관련 문헌, 선행 논문, 문헌연구와 패션관련 사진자료, 박물관 및 전시회 자료를 통한 사례연구를 한다.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의 범위로는 그가 디자인에 입문했던 1918년부터 1968년의 은퇴시기로 한정한다.

II. 스페인 취향에 관한 고찰

1. 개념

본 절에서는 사회 문화적 담론을 통해 ‘취향’의 개념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스페인 취향’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취향

‘취향’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²⁾’ 또는 ‘하고 싶은 욕구가 기우는 방향³⁾’으로 유의어로는 기호, 취미, 경향 등이 있으며, 영어로는 Taste, Liking, Fondness 등으로 표기된다.

‘취향’은 17세기 프랑스의 상류층이 자신의 문화를 구별짓기 위해 사용한 ‘고급문화’를 지칭하는 용어였다.⁴⁾ 이 후 18세기 경험론 미학에 의하여 취향은 ‘취미’로도 불리며 일정한 사물에 대한 호·불호의 가장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판단을 표

현하였다.⁵⁾ 오늘날의 취향은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자 선호이며 현대 사회에서 개인을 구별 짓는 중요한 요소이다.⁶⁾

취향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의 연구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문화산업론(Cultural Industry)’에서 비롯되었으며, 문화의 다양성을 중심에 두고 대중문화를 옹호하는 겐즈(H. J. Gans)의 ‘취향문화론(Taste Culture)’에 이어 기존 이론들의 통합을 모색한 부르디외(P. Bourdieu)의 ‘문화자본론(Cultural Capital)’을 통해 ‘아비투스(Habitus)’의 개념으로 정리되었다.⁷⁾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문화적 취향이 다양한 집단에 따라 상이한지 아니면 동질성을 갖는지에 관한 논의는⁸⁾ 프랑크푸르트학파들의 문화산업론에서 시작되었다. 프랑크푸르트학파는 취향을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만의 기호’로 인식하며 대중문화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들은 대중문화를 참된 요구의 산물이 아닌, 유발되고 조작된 문화산업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문화 산업에 의해 ‘가장된’ 대중문화는 대중을 정치적으로 통제시키며, 전통적으로 소수 엘리트들만이 향유하던 고급문화를 표준화, 동질화 시켜버림으로써 문화의 평준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⁹⁾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대중문화 비판론에 대해 겐즈는 ‘취향문화론’으로 반대의 이론을 펼쳤다. 그는 취향이 개별 행위자의 선택이라는 명제¹⁰⁾하에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차이는 과장된 것이며, 서로 다른 경제적, 교육적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선택한 취향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¹¹⁾ 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미적 만족을 추구하고 그들의 문화적 선택이 자신의 가치와 취향표준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 문화가 고급하건 저급하건 똑같이 가치 있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미적 다원주의 개념을 제시하였다.¹²⁾

한편 부르디외는 ‘문화 자본론’을 통하여 취향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개인이 속한 구조적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생성됨을 규명하였다. 그는 취향의 개념을 계급의 문화자본이 계급 내 행위자에게 체화되어 고유의 행동 양식으로 표출된 것임과 동시에 개인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구분 짓게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부르디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조적 계급과 행위 사이를 매개하는 구조로서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끌어들이었다.¹³⁾ 아비투스란 ‘개인에게 내재화된 사회 구조 체계’로서 계급 내 행위자의 실천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데 취향은 바로 아비투스의 가장 가시적인 표현물인 것이다.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를 생성하는 특정 계층의 물질·비물질적 자원을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이라 칭하였는데, 여기에서 ‘자본’은 사회적 경쟁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이다.¹⁴⁾ 따라서 부르디외는 아비투스의 가시적 표현물인 취향이 개인을 둘러싼 외적요인 즉, 문화자본에 의하여 변화되는 특성을 지닌다고 역설하였다.

취향은 인간을 둘러싼 사회·문화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므로 본 연구는 문화적 관점에서 취향을 체계화한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에 근거하여 취향의 개념을 ‘개인에 속한 집단의 문화자본이 개인에게 내재화되어 표출된 개인 고유의 기호 및 특성’이라 정의한다.

2) 스페인 취향

부르디외의 이론에서 제시한 ‘계급구조’는 보다 큰 의미에서 ‘국가’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취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구조적 체계 속에서의 행위자 즉 국민의 취향을 형성하는 요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요인을 앞에서 살펴본 부르디외의 문화 자본론에 근거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문화자본에서 찾고자 한다.

국가 취향은 국가가 제공한 문화 자본이 국민

에게 체화되어 취향을 생성하고 국민 각자 취향의 공통분모에 의한 동질성으로 대중의 취향이 발생¹⁵⁾하며 이것이 지역의 취향, 나아가 국가의 취향으로 발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페인 취향은 스페인의 문화자본이 스페인 국민의 내부에서 승화되어 개개인, 지역, 국가의 기호 및 특성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페인 취향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스페인 국가의 단편적인 전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 내재한 기질과 성향을 표현하는 것이며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내포함으로써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 스페인만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¹⁶⁾을 의미한다.

2. 스페인 문화자본

본 절에서는 스페인 취향의 도출을 위해 스페인 문화자본에 해당하는 역사, 지역성과 민속 복식, 예술, 민족성에 대해 각각 고찰하고자 한다.

1) 역사

스페인은 민족구성에 있어서 기원전 11세기부터 켈트-이베리아인 형성된 이후 카르타고인, 그리스인, 로마인, 서고트족, 유대인, 그리고 800년 동안 스페인의 일부를 지배했던 이슬람교도 등 역사적으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었다.

기원전 19년에 로마인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면서 가톨릭이 전파되었으며, 로마제국 멸망 후 15세기 말까지는 서고트와 이슬람 문화로 이루어진 중세시대를 보냈다. 약 300년간 스페인을 지배하였던 서고트족은 창조보다는 모방에 능했으며 매우 발달된 조각기술이 있어 단순한 형태의 의복을 금으로 된 호화 세공품으로 장식하였다. 또한 그들이 남긴 말발굽 형 아치무늬는 스페인의 필수적 건축 요소가 되었다. 8세기 초 서고트족의 멸망 후 약 800년 동안 스페인은 이슬람교도의 통

치 하에 있었고 이로써 스페인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형성하게 된다. 이슬람 문화는 중세 유럽에 비해 예술과 과학 분야에 강했으며, 이는 건축술, 무기, 갑옷, 수학, 과학, 예술, 그리고 직물 등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한편, 1469년 신생 기독교 왕국들이 이슬람 왕조를 함락시킴으로써 스페인은 가톨릭으로 통일된 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강력한 중앙집권화로 왕권을 강화했으며¹⁷⁾,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엄청난 부와 영토를 획득하여 비로소 황금시대를 맞이한다. 16세기와 17세기는 스페인이 문화적으로 가장 풍요를 누린 시기로 이때 군사적, 정치적, 예술과 종교적으로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17세기의 스페인 바로크 시기는 찬란한 문화를 이룩해 내었으며 종교기관인 교회의 영향력이 컸다.¹⁸⁾

그러나 1898년 쿠바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벌인 전쟁에서 패한 이후 세계 대국이 되기 위한 스페인의 꿈은 좌절된다. 1937년 3년간의 스페인 내전 발발 후 36년간의 프랑코 독재로 인해 스페인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문화적 정체성을 겪는다. 1975년 프랑코의 사망 후 후안 카를로스 1세에 의해 민주화를 이루기 시작하였으며, 1986년의 유럽 연합(EU) 가입으로 유럽 국가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¹⁹⁾

2) 지역성과 민속 복식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하며, 북으로는 피레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유럽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과 맞닿아 있어 동서양의 교량적 역할을 해왔다. 다양한 기후와 식생이 공존하고 있는 스페인은 크게 대서양 연안의 북부지역, 메세타 고원이 자리한 중부지역, 지중해의 영향을 받은 남부지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북부지역은 대서양의 영향을 받은 해양성 기후로 습윤하고 해변 지역이 많다. 스페인 북부 서쪽 끝 갈리시아(Galicia)지역의 남자는 흰 내의가 겹

로 드러나 보이는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으며 ‘몬테로(Montero)’라는 방추형 관류를 쓰는데 지방에 따라 차양을 접고 내리거나 비틀어 속으로 접어넣는 여러 형태가 있다.²⁰⁾ 여자의 경우 가슴에서 교차시키는 술이 일반적이고, 축제 시에는 끝이 뾰족하고 풀을 먹인 덩게(Dengue)를 가슴에서 교차시켜 뒤로 묶어 술을 대신 하였다.²¹⁾

바스크(Basque)사람들은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의 후예로 보수적이며 사나운 기질을 지녔다.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그들만의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며²²⁾ 단순하고 실용적인 의상을 선호한다. 남자는 단순하게 채단된 흰 셔츠에 검정색 조끼, 반바지와 긴 양말을 신고 여기에 레드 사시(Sash: 벨트의 일종)와 스카프, 그리고 베레모를 더한다<그림 1>. 여자의 의상 또한 단순하여 소매 있는 보디스나 조끼, 그리고 슈미즈가 대표적이며 겨울에는 중세 수도승의 두건과 같은 바누스(Burnous: 후드 달린 의복)를 착용하여 거친 날씨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그림 2>.²³⁾

중부지역은 해발 600-1200m의 메세타 고원지역에 자리하여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바람이 강하고 추위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지닌다. 강렬한 태양과 건조한 대기로 지표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블랙 컬러는 스페인 정서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중앙의 메세타 지역에 자리한 톨레도(Toledo)와

마드리드(Madrid)가 있는 카스티야(Castilla) 지방은 서고트족의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되었으며 금속 공예와 자수가 발달하였다. 의복에도 다른 지역보다 섬세한 자수나 아플리케의 장식적인 면이 부각된다. 마드리드의 투우사 복식<그림 3>은 허리 정도까지 내려오는 짧은 길이와 각진 어깨의 재킷, 그리고 몸에 타이트하게 달라붙는 종아리 중간정도 길이의 토리도어도 팬츠(Toreador Pants: 토리도어는 투우사라는 스페인의 옛 명칭)로 구성되며,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은 자수 장식이 화려하게 나타난다.²⁴⁾ 스페인자수(Spanish Embroidery)라고도 불리는 투우사 복식의 장식은 서고트족의 블랙워크(Black work)기법에 이슬람의 황금색 수실 장식이 가미되 화려함을 더한다.

중부지역 서쪽에 위치한 에스트라 마두라지역의 몬테 헤르모소(Montehermoso)에서는 독특한 보닛과 스커트로 이루어진 민속 복식을 발견할 수 있다. 여자는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그 위에 ‘고라(Gora)’라고 하는 보닛을 썼는데, 유색의 울이나 거울, 밀짚으로 납작하게 꼰 끈으로 고라의 표면을 장식하였다<그림 4>. 일상복은 슈미즈와 화이트 페티코트, 플리츠로 된 블라우스와 서로 다른 색의 여러 겹의 스커트를 층층이 겹쳐 입었다.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시아(Andalusia)는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으로 건조한 대기와 온화한 기후, 찬란한 햇빛의 지중해성 기



<그림 1> 바스크지방의 베레모
(출처: 『세계 각국의 민속의상』,
2000. p.97)



<그림 2> 바스크 여인의 두건
(출처: 『유럽의 민속의상』,
1988. p.137)



<그림 3> 투우사 복식
(출처: 『Balenciaga and Spain』,
2011. p.179)



<그림 4> 몬테헤르모소
여인의 머리장식 ‘고라’
(출처: <http://folkcostume.blogspot.ca/2013/03/costume-of-montehermoso-caceres.html>)



〈그림 5〉 긴 트레인의 플라멩코 드레스
(출처: 『세계 민속의상의 이해』, 2006. p.128)



〈그림 6〉 코르도바 햇
(출처: <http://thehatshop.ca/the-cordobes-hat/>)

후를 지니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향토색을 보여주는 대표적 민속 문화로는 집시들의 춤과 노래 그리고 이 지역 고유 민속 무용이 융합된 플라멩코(flamenco)를 들 수 있다.²⁵⁾

안달루시아의 민속복은 층층이 겹쳐진 러플 장식과 긴 트레인을 지닌 플라멩코 드레스와 동일한 형식을 지닌다<그림 5>.²⁶⁾ 여자는 프린지 장식이 달린 술을 어깨에 걸치고 머리에는 꽃이 장식된 빛, 에스카르피도르(escarpidor)를 꼴는다. 커다란 링 귀걸이와 목걸이를 하며 타조 털로 된 부채를 들고 머리에는 만틸라를 써²⁷⁾ 화려하고 장식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남자는 뜨거운 태양빛을 차단하기 위해 크라운이 낮고 브림이 수평으로 긴 코르도바 햇(cordoba hat)<그림 6>를 쓴다. 상의로는 흰 셔츠에 조끼와 짧은 재킷을 착용하며²⁸⁾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예의를 갖춘 복식, 클로크를 어깨에 걸친다.

3) 예술

본고에서는 스페인 예술의 특징을 건축과 회화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스페인은 외부의 건축양식 도입에 개방적이었다. 북 아프리카에서 이슬람을, 프랑스에서 로마네스크와 고딕을,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양식을 받아들였는데, 각 양식들은 스페인으로 오면서 음영이 강하게 대비되는 스페인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재창조 되었으며²⁹⁾ 이슬람과 가톨릭의 융합이라는 종교의 영향을 크게 받아 다른 유럽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독자적인 건축양식을 탄생시켰다.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전개된 이슬람 건축의 ‘칼리프 양식’은 주위의 경치와 조화되는 낮은 건물과 돌, 벽돌, 석회, 나무를 재료로 원형 지붕을 덮고, 내부는 채색 타일로 장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치는 서고트족의 영향으로 말발굽 형의 아치와 여러 반원형의 아치 형식이 나타났으며, 대표적 건축물로는 코르도바의 이슬람 사원과 알함브라 궁이 있다.

이슬람의 지배 하에서도 스페인은 북쪽 이슬람 통치권 밖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가톨릭이 반영된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8-13세기)을 받아들였고 이를 발전시킨 고딕 양식도 도입하였다. 16세기에 가톨릭이 스페인을 통합한 이래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양식이 도입되었지만 스페인에서는 장식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17-18세기의 바로크 건축도 툴레도 대성당 안의 재단 ‘트란스 파렌테’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건축 공간 자체를 바로크적으로 구성하기보다 장식에 역점을 두었다. 18세기 이후 건축양식의 정체를 지나, 19세기 말 아르누보(Art Nouveau)의 흐름과 함께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i)에 의한 스페인만의 바로크적 건축이 부활하였다. 근대 합리주의를 근간으로 한 가우디의 건축은 스페인의 이슬람, 고딕, 바로크와



〈그림 7〉 벨라스케스의 『시녀들』(Las Meninas), 1656.
(출처: <https://www.museodelprado.es>)



〈그림 8〉 알바 공작부인의 초상, 1979.
(출처: 『Balenciaga and Spain』, 2011 p.32)

같은 전통적인 양식을 혼합하여 유기적인 생동감을 특징으로 한다.³⁰⁾

스페인 회화는 로마네스크 시대부터 독자적인 스타일을 갖기 시작하였으며³¹⁾, 다른 예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사실적이고 독창성이 높으며 인간의 삶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Diego Rodríguez Velázquez, 1599-1660)는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궁정화가로 바로크 예술의 기본적 요소인 사실주의와 빛의 효과를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초상화에도 뛰어났던 그는 신화 속 인물들을 이상화시켜 그린 이탈리아 화가들과 달리 사실적이며 직접적인 그림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걸작 ‘시녀들(1656, Las Meninas)’〈그림 7〉을 비롯하여 많은 그의 작품은 19세기 인상주의와 사실주의 화가들의 귀감이 되었다. 프란시스코 주바란(Francisco de Zubarán, 1598-1664)은 스페인 바로크 시대 성인과 순교자를 주제로 한 종교화의 대가로서 서서 카톨릭 교회의 숭고함과 엄숙함을 뛰어난 명암의 대조를 사용하여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18, 19세기를 걸쳐 활동한 고야(Francisco José de Goya Lucientes, 1746-1828)는 그가 청각 상실로 고통 받기 전 까지 궁정 화가로서 화려하고 호화로운 분위기의 작품을 그렸으며 특히 마야(Maja)가 애용하던 만틸라(Mantilla)의 섬세한 레이스를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이그나시오 솔로아가(Ignacio Zuloaga, 1870-1945)는 민속 문화를 주제로 스페인 바로크적 표현기법을 구사하였다. ‘98’세대의 화가로서 스페인 전통 화법에 기인한 민중의 삶을 극적인 사실주의로 표현하였다. 1921년 Zumania에 미술관을 세우고 벨라스케스, 엘 그레코, 주바란, 그리고 고야의 작품을 전시하면서³²⁾ 스페인의 황금기를 회상하듯 강한 명암대비와 거침없는 필치로 자연 환경을 비롯하여 집시, 투우의 생동감 있는 민중의 문화를 그려냈다〈그림 8〉.

20세기 초에는 많은 스페인 화가들이 파리에서 활동하면서 모더니즘 미술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피카소는 프랑스 화가 브라크와 함께 입체주의를 탄생시켰으며, 살바도르 달리, 호안 미로는 현대 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겼다.

4) 민족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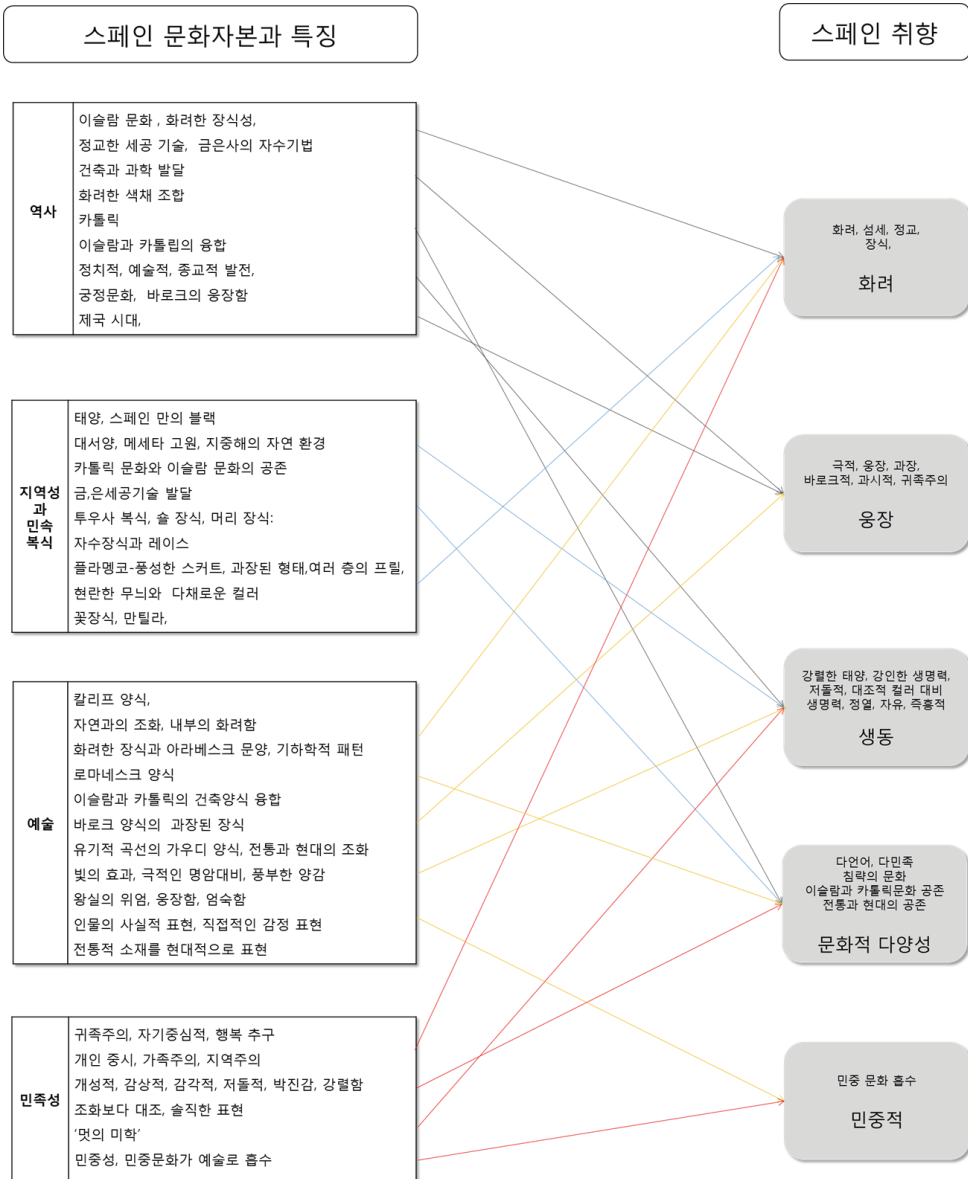
스페인 사람들의 독특한 기질은 중세시대 국토 회복 전쟁으로 인해 크게 늘어난 귀족층, 침략과 전쟁의 역사, 그리고 태양,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스페인 국민에게는 첫째, 개인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은 귀족주의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의 많은 침략 속에서, 정복자들과 평화롭게 살면서도 자기만의 문화와 관습을 지

키고자 한 데에서 비롯한다. 스페인 국민의 강한 개성과 자유 추구,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 하는 삶의 태도는 여가를 즐기며, 댄스, 축제의 문화를 만들어 내었다.

둘째, 스페인 국민은 매우 감각적이다. 그들은

대조를 특색으로 하는 풍토에서 태어나 투우에서 볼 수 있듯이 야성과 박진력을 가졌고 분석적이기 보다는 피부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중요시 한다. 머릿속의 이념 또는 막연한 공상 보다는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



<그림 9> 스페인 취향의 도출 과정

는 현실적인 것에 비중을 두는 경향은 영화나 문학, 종교에도 나타난다.³³⁾ 예를 들어 전통적인 성주간의 종교 행렬시 피투성이가 된 그리스도상과 신도들의 비통한 헨가인 ‘사에따’를 부르는데 스페인 에서는 신앙 또한 마음과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³⁴⁾ 그들의 감각적이고 느낌을 중요시하는 경향은 투우와 플라멩코에서 볼 수 있듯이 ‘멋’의 감각을 수반함으로써 예술적으로 승화되어 나타났다.

셋째, 스페인 민족은 특유의 ‘민중성’을 지니고 있다. 민중은 표현 그대로 ‘평범한’ 또는 모든 ‘일반적인’ 집단,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불특정 다수를 의미한다. 스페인은 귀족 또한 민중적인 귀족으로서, 귀족 상류사회와 평민 하층사회 사이에는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인 담이 없다.³⁵⁾ 투우와 플라멩코와 같은 지방 민속 문화의 국가적 차원으로의 발전은 항상 민중의 생기를 흡수하고 그것에 근거해 발전해 온 스페인 민족성의 결과인 셈이다.

3. 스페인 취향

앞에서 고찰한 스페인의 역사, 지역성과 민속 복식, 예술, 민족성을 토대로 이들이 지닌 특성을 공통된 성질로 범주화한 결과 화려성, 웅장성, 생동성, 문화적 다양성, 민중성의 다섯 가지 스페인 취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스페인 취향의 도출 과정은 <그림 9>와 같다.

1) 화려성

스페인의 화려한 취향은 카톨릭과 이슬람의 문화적 기원과 관련한다. 중세시대 이슬람 문화의 자수 장식, 아라베스크 무늬, 금은 세공기술과 이슬람 사원의 건축 양식은 스페인 취향이 화려하고 장식적인 특징을 갖는데 큰 영향을 주었으며 대표적으로 알함브라 궁전의 칼리프 양식과 투우사 복

식의 자수 장식을 들 수 있다.

스페인 회화를 통해서도 화려한 취향을 엿볼 수 있다. 벨라스케스, 고야는 바로크 시대의 극적인 궁정 문화와 드레스의 자수 장식, 만틸라의 섬세한 레이스를 표현하였고, 주바란은 골드와 버건디, 블랙과 화이트의 독특한 색감 조화로 화려함에 이국적 향취를 더하였다.

귀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스페인 국민들은 자신을 누구보다 중요한 존재로 여기며 스스로를 내세우기를 좋아한다. 때문에 과시적이며 과장된 행동을 보이는데 이는 스페인의 화려한 취향을 생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2) 웅장성

스페인의 웅장함은 이슬람 사원의 압도적인 규모와 카톨릭 교회의 엄숙하고 장대함, 바로크 시대의 국가적 위상과 과장된 의복형태, 건축 양식을 통해서 나타난다. 바로크 회화의 거대한 볼륨감 표현은 강렬한 빛에 의한 극적인 명암 대비로 나타난다. 벨라스케스의 깊이 있는 명암 표현은 접근하기 어려운 왕실의 위용을 보여주고, 주바란 회화 속의 드레이프진 옷감의 명암에서는 풍부한 양감이 느껴진다. 고야의 여인들은 볼륨 있는 스커트, 극적인 블랙 망토, 머리 위를 과장되게 장식한 만틸라 의해 부드러우면서 당당한 여성상을 보여준다.

3) 생동성

스페인의 생동하는 취향은 침략의 역사에서 기인한 삶에 대한 강렬한 애착과 저돌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민족성, 스페인만의 색감 매치를 통하여 나타난다.

대륙지역의 척박한 환경 속 붉은 빛의 테라코타 컬러는 사막에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으로 인한 그림자의 컬러, 블랙과 조화되며, 비비드한 컬러들의 조합은 스페인 특유의 저돌적이며 야성적 이미

지를 만든다. 안달루시아로 대표되는 스페인 남부에서는 지중해의 찬란한 햇빛과 청명한 코발트빛 하늘과 함께 플라멩코 드레스의 다채로운 컬러 조합과 리플을 볼 수 있다.

스페인 사람들은 표현의 기본을 ‘삶’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분석하기보다 실제로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려 한다. 즉 흥취적이고 감각적인 이들은 지중해의 낭만과 축제를 통해 행복과 여유로운 삶을 즐긴다. 이렇듯 개인의 행복과 감정의 표현을 중시하는 스페인 사람들은 원색적이고 화려한 색감 조합을 통하여 생동하는 이미지를 표현한다.

4) 문화적 다양성

스페인은 침략의 역사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이 형성되었다. 북으로부터 침입해온 켈트족, 로마인의 지배, 서고트족의 침입, 이슬람과 가톨릭의 지배로 다양한 민족 구성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이슬람과 가톨릭의 문화가 융합되어 건축, 회화, 복식 등에 나타났고, 이는 다른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스페인만의 특징이 되었다.

한편 스페인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는 대서양과 지중해에 맞닿아 있어 다양한 기후와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영으로 50개개 넘는 민속 복식이 생겨났다. 스페인 국민 특유의 개인주의, 가족주의, 지역주의로 인해 유지될 수 있었던 각 지방의 고유문화는 국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문화적 다양성을 형성한다.

5) 민중성

스페인에는 빈부 격차를 떠나 계급 사이에 근본적인 담이 없다. 스페인 문화는 즉흥적이며 감정의 표현에 자유로우며 형이상학적인 개념보다는 인간의 삶에 대해 친숙하고 진솔한 표현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스페인 회화는 이상화된 미 보다는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 보다 직접적인 감정의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 바로크 시대의 화가 벨라스케스는 왕이나 교황의 모습을 그릴 때조차도 이들의 위엄 있는 분위기와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의 왕 또는 교황을 지극히 사실적인 필치로 그려냈으며 이그나시오 솔로아가는 민중의 삶을 그림으로써 스페인의 저력을 민중 속에서 찾으려 하였다.

또한 민중 문화의 확산에 어떠한 선입견이나 제약이 없어 투우와 하층 계급인 집시의 문화, 플라멩코가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III. 발렌시아가 디자인에 나타난 스페인 취향

본 장에서는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의 디자인에 반영된 스페인 취향에 대해 논의한다.

1. 발렌시아가에 관한 고찰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작은 어촌인 게타리아(Gueteria) 출신의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는 어릴 적부터 의상관련 일을 했던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는 게타리아 인근의 산 세바스찬(San Sebastian)을 찾아온 귀족들과의 인연으로 그들의 문화와 예술, 취향을 접할 수 있었으며³⁶⁾, 이는 발렌시아가의 디자인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18년 루브르(Louvre) 자매와의 동업으로 첫 쿠튀르 메종을 설립하면서 스페인의 빅토리아 유제니아(Victoria Eugenia) 왕비, 왕비의 모친인 마리아 크리스티나(Maris Christina)와 그녀의 시녀들 모두 발렌시아가의 고객이 되었다.

1937년 스페인 시민전쟁(1936-1939)을 피해 런던으로 이주 한 후 파리 조르주 5번가 10번지에 자신의 쿠튀르 하우스를 열게 된 발렌시아가는³⁷⁾

1937년 스페인 바로크에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을 개최하였다. 다양한 역사적 스타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이 컬렉션은 디자이너 발렌시아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940년대 이후 발렌시아가는 허리에 여유를 둔 유기적인 라인을 선호하면서 1960년대까지 여성의 인체와 의복과의 관계에 변화를 시도하는 획기적이고 구조적인 실루엣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그는 1960년대의 영 패션(Young Fashion)시대의 도래와 급변하는 패션의 소비시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968년 5월 패션 하우스를 닫고 은퇴를 선언하였으며, 1972년 스페인 제비아(Javea)에서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다.

혁신적이고 구조적인 실루엣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스페인만의 강렬한 색감과 바로크의 웅장함, 플라멩코와 투우, 강인한 생명력 등과 같은 스페인 취향은 언제나 발렌시아가 디자인의 정서적 모티브였다. 발렌시아가는 파리 진출 이후에도 그의 누나와 조카를 통해 스페인의 쿠튀르 하우스를 유지하였다. 1968년까지 발렌시아가의 개인 비서로 일했던 제라드 추에카(Gérard Chueca)는 발렌시아가가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향 게타리아를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고 추억하였다.³⁸⁾ 또한 이그나시오 솔로아가(Ignacio Zuloaga)와 호안 미로(Joan Miro)등 스페인 예술가들과 깊은 친분을 나누면서 디자인 생애에 스페인 취향을 반영하였다. 발렌시아가는 스페인의 정열과 파리의 우아함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 시킨 디자이너로 패션역사에 남게 되었다.

2. 발렌시아가 디자인에 나타난 스페인 취향

1) 발렌시아가 디자인의 특징과 스페인 취향
발렌시아가의 디자인은 장식, 실루엣, 색감과 디테일의 면에서 특징지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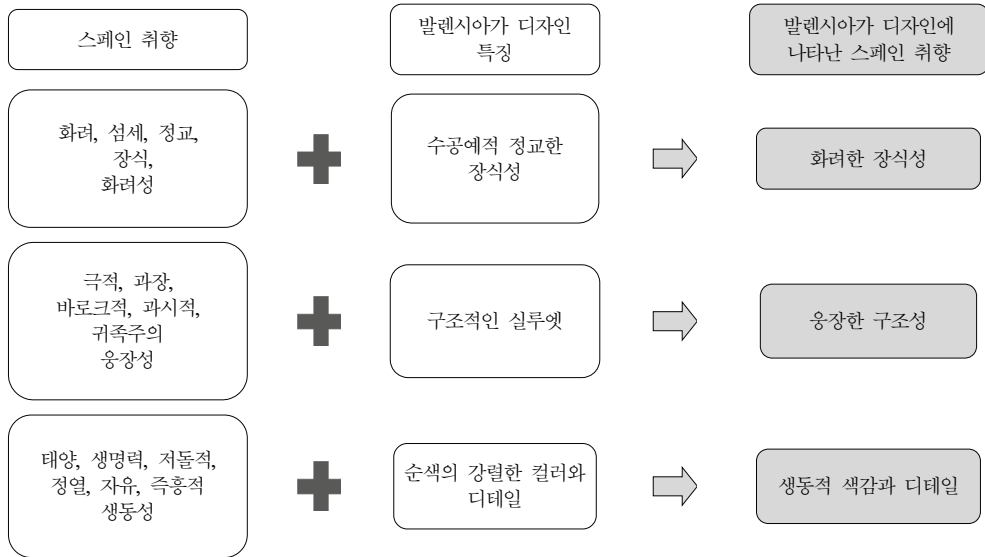
발렌시아가는 실루엣에서 기능적인 단순함을

추구하면서 자수 장식과 아라베스크 무늬로 복식의 표면을 장식하였다. 그는 보석과 모피, 브레이드, 구슬장식(Zet Beading), 시퀀과 볼프린지(Ball Fringes), 리본, 레이스를 사용하여 섬세한 수공업 형태로 작업하였으며 기술적 완벽함으로 인한 장식미는 예술의 경지로 승화되었다.

구조적 실루엣은 발렌시아가의 디자인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의 디자인은 정확한 재단과 적절한 소재, 비례의 균형미를 인체와 완벽히 조화시켰다. 특히 그는 형태적 순수성 추구에 기초를 두었는데³⁹⁾ 후기로 갈수록 추상적이고 기하학적 형태와 절제된 라인을 사용하여 신체의 굴곡을 외면한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을 보여주었다.⁴⁰⁾ 여성의 인체를 억압하는 코르셋을 제거하여 1951년에 세미 피티드 슈트를 발표하였고, 1955년에는 튜닉 실루엣을 통하여 가슴과 허리를 강조한 여성미에 관한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모던한 여성미를 표현하였다. 발렌시아가 디자인의 형태 단순화는 허리선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삼각 꼴과 같은 구조적 형태를 만들어낸 1958년의 베이비돌 실루엣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1960년대 이후 그의 형태적 추상화는 더욱 진보하여 술기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극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으며 내부 구조의 최소화를 신소재 가자(gazar)를 통하여 구현하였다.

색감과 디테일 면에서 발렌시아가의 디자인은 강렬함과 율동감을 표현하였다. 색감에 있어서는 비비드 컬러와 순색의 자유로운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발렌시아가가 사용한 칠흑같이 어두운 젯블랙(jet black)은 스페인의 강렬한 태양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를 연상시킨다. 한편 꽃을 모티브로 한 패턴의 사용과 러플, 툴로 이루어진 디테일을 사용하여 유기적인 형태와 가벼운 소재감으로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른 다양한 율동감을 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발렌시아가 디자인의 특성으로는 발렌시아가의 장인정신이 깃든 수공예에 의



〈그림 10〉 발렌시아가 디자인에 나타난 스페인 취향

한 장식성, 구조적 실루엣, 그리고 강렬한 색감과 유동적 디테일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화려성, 웅장성, 생동성이라는 스페인 취향과 결합되어 발렌시아가 디자인의 스페인 취향을 형성한다.

발렌시아가 디자인에 나타난 스페인 취향을 정리하면 <그림 10>과 같다.

2) 발렌시아가 디자인에 나타난 스페인 취향

(1) 화려한 장식성

발렌시아가는 실루엣에서 기능적인 단순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복식의 표면을 장식하여 스페인 특유의 화려한 취향을 보여준다. 장식을 위해 1940년대에는 어두운 재료인 흑옥 구슬, 1950년대에는 보석과 원형으로 된 작고 빛나는 금속재료, 그리고 1960년대에는 자개, 진주, 모조 보석을 주로 사용하였다.⁴¹⁾ 그의 복식에 사용된 자수 장식은 카네이션을 비롯한 꽃과 과일 등을 모티브로 사용하였으며 보석과 모피, 시퀸, 레이스 장식 등은 스페인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드레스 표현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발렌시아가는 투우사 복식을 차용하여 자수와 시퀸 등으로 화려한 스타일의 블레로를 디자인 하였다. <그림 11>은 흑옥 구슬과 시퀸의 긴 구슬 프린팅으로 투우사 복식이 지닌 강하고 힘찬 느낌을 우아하고 섬세하게 표현 하였으며 1947년에 발표한 재킷 <그림 12>는 파이핑과 유리가 접착된 구슬로 꽃과 하트 모양의 모티브로 표면을 장식하였다. 이 재킷은 투우사 복식뿐만 아니라 18세기 마야(Maja)의 스타일과도 접목되었다. 마야(maja) 또는 마요(majo)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 스페인 노동자 계급을 이르는 것으로, 귀족들과의 차별성을 위하여 전통에서 기인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었던 마야의 스타일이 광범위하게 유행을 하자 민중의 문화를 흡수하는데 자유로웠던 19세기 스페인 귀족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⁴²⁾ 마야 스타일이 반영된 귀족의 의복은 고야의 회화 속 여인들의 의복에서 잘 나타나며 발렌시아가는 마야의 의복을 재해석하여 섬세한 레이스로 의복을 장식하였다<그림 13>, <그림 14>.

발렌시아가의 최고급 소재와 라인스톤을 이용



<그림 11> 흑옥 비드와 시퀸, 긴 구슬 프린지의 볼레로, 1940
(출처: 『Balenciaga』, 2011. p.117)



<그림 12> 블루 실크 벨벳의 짧은 재킷, 1947
(출처: 『Balenciaga』, 2011. p.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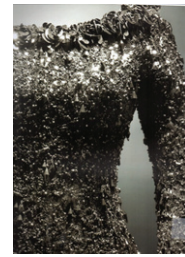
<그림 13> 고아의 도냐 이사벨 더 포르셀의 초상, 1805
(출처: [http:// www.nationalgallery.org.uk](http://www.nationalgallery.org.uk))



<그림 14> 블랙 레이스의 칵테일 드레스, 1964
(출처: [http:// cristobalbalenciagamuseoa.com](http://cristobalbalenciagamuseoa.com))



<그림 15> 시퀸과 비드로 장식된 실크 벨벳 드레스, 1941
(출처: 『Balenciaga and Spain』, 2011. p.98)



<그림 16> 튜닉 스타일 시퀸 드레스, 1964
(출처: 『Balenciaga』, 2011. p.280)

한 장식적 디자인은 <그림 15>와 같은 블랙과 딥 블루의 컬러 조합과 어우러져 스페인 바로크 시대의 웅장하고 화려한 궁정 복식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1955년에 발표한 튜닉 드레스는 1960년대가 되어 장식적 화려함이 더욱 강조되었는데 <그림 16>과 같이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기술 집약적 장식은 수공예 공방, 르사주(Leasage)⁴³⁾와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2) 웅장한 구조성

스페인 바로크 시대의 웅장한 복식은 발렌시아가 디자인 철학의 관철에 의해 공간의 깊이가 느껴지는 구조적 실루엣으로 완성되었다. 발렌시아가는 스페인 바로크 회화에 등장하는 위엄 있는 여성상을 추구하면서 “의복은 신체의 움직임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단지 신체를 가볍게 스치는 것이어야 한다.”⁴⁴⁾는 디자인 철학으로 인체와 의복

사이에 공간을 두는 디자인을 하였다. 여기에 ‘형태적 순수성의 추구’가 조화되어 독창적인 의복 구조가 형성되었다.

발렌시아가 디자인의 웅장한 구조는 ‘과장’과 ‘환원’의 개념으로 구현된다. ‘과장’은 풍성하고 극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며 주름, 과장된 형태, 레이어링을 통해 표현되고 ‘환원’은 형태의 본질을 추구하며 추상적이고 단순한 실루엣으로 귀결된다.

① 과장

발렌시아가는 주름, 드레이프, 과장된 형태로 웅장함을 표현하였다. 그는 타프타(taffeta)와 같은 무게감이 있고 형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소재의 드레이프를 통해 인공적 지지대나 페티코트에 의존하지 않고도⁴⁵⁾ 주바란이 전하는 느낌과 유사한 풍부한 양감을 표현하였다. <그림 17>은 주바란의 회화 속 성녀의 복식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폭 넓은 타프타를 드레이프지게 하여 볼륨을 표현 하였으며, 이로써 부드러움과 건축적인 느낌을 절묘하게 조화시켰다.⁴⁶⁾ 또한 구 형태의 기하학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그림 18>과 같은 과장된 벌룬(balloon) 실루엣을 발표하였는데 허리 라인과 헴 라인에 주름 또는 턱을 주어 구와 같은 공간감을 형성하였다.

발렌시아가의 볼륨감에 대한 과장된 표현은 소매에서도 나타났다. <그림 19>는 두꺼운 울 소재의 코트소매에 풍부한 주름을 잡고 둥근 컵스로 처리한 ‘멜론(melon)형태의 소매’로서, 두껍고 부드러운 울 소재를 사용하여 깊은 주름을 여러 개 구성하여 볼륨감과 리듬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여유 있고 편안한 형태를 만들어냈다.⁴⁷⁾ 한편 인체의 형태에서 벗어난 조형적인 의상을 통하여 웅장함을 표현하였는데 1960년대의 작품 <그림 20>은 고야의 ‘알바 공작부인의 초상(Portrait of the Duchess of Alba, 1797)’에서 묘사된 검고 풍성한 만틸라를 발렌시아가만의 구조적 방법으로 재해석한 것이다.⁴⁸⁾

② 환원

발렌시아가는 완벽한 실루엣을 창조하기 위해 복잡한 재단과 구성의 기술을 실험하였고, 그의 디자인은 단순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의상

으로 승화되어 1960년대 이후 피라미드, 사다리꼴, 또는 타원과 같은 환원적인 형태로 나타났다.⁴⁹⁾ 환원성은 사물의 영원하고 절대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태를 그 원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정제하여 본질적 특성만을 나타내게 된 상태를 말한다. 발렌시아가 디자인에서의 환원적 형태는 절개의 최소화와 함께 소재의 개발로 구현될 수 있었다. 1960년대 아브라함(Abraham)사와 줌스테그(Zumsteg)의 제품은 발렌시아가에게 필수적인 촉감, 무게, 딱딱함, 중량감의 소재를 제공하였고⁵⁰⁾ 이러한 소재를 사용하여 완벽한 비례와 건축적 형태감을 지닌 슈트, 데이 드레스와 이브닝 웨어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발렌시아가는 19세기의 버슬 스타일, 18세기의 색 가운(sack gown),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회화 속 성녀의 드레스와 같은 스페인 전통 복식을 정제시켜 구조적으로 웅장한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1951년 가을 컬렉션에서 발표한 세미 피티드 실루엣은 주바란의 회화 속에 묘사된 색 드레스를 재해석한 것으로 전통에서 기인한 이 혁신적인 실루엣은 현재 까지도 많은 디자인에 활용되고 있다 <그림 21>. 앞은 꼭 맞게 구성하고 뒤는 여유 있게 떨어져 얼핏 불완전해 보이는 실루엣을 지닌 이 슈트에 당시 하퍼스 바자의 편집장 카멜 스노(Carmel Snow)는 세미 피티드 룩(Semi fitted look)



<그림 17> 주바란 회화와 발렌시아가의 이브닝 드레스 (출처: 『Balenciaga』, 2011. p.221)



<그림 18> Balloon 실루엣 드레스, 1950 (출처: 『Balenciaga』, 2011. p.307)



<그림 19> 멜론 소매의 울 코트, 1950 (출처: <http://stopdropandvogue.com/>)



<그림 20> 블랙 실크 가자 케이프, 1967 (출처: 『Balenciaga and Spain』, 2011. p.68)



〈그림 21〉 세미 피티드 슈트, 1951. (출처: 『Balenciaga』, 2011. p.343) 〈그림 22〉 핑크 바이올렛 패턴의 타프타 드레스, 1961. (출처: 『Balenciaga』, 2011. p.379) 〈그림 23〉 블랙 가자 이브닝 드레스, 1962. (출처: 『Balenciaga』, 2011. p.382) 〈그림 24〉 짧은 트레인의 롱 코트, 1955. (출처: 『Balenciaga』, 2011. p.344) 〈그림 25〉 웨딩 가운, 1967. (출처: 『Balenciaga』, 2011. p.45)

이라 이름 붙이고 여성 패션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하였다.⁵¹⁾ 17세기 주바란의 ‘성 카실다’의 그림 속 성녀의 스커트와 트레인은 발렌시아가의 디자인에서 구조적으로 함축되었다<그림 22>. 즉 따로 재단하는 방식이 아닌, 스커트와 연결된 구조로서 트레인을 디자인하여 바로크 시대의 풍성한 트레인의 이미지를 표방하면서 현대적인 실루엣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은 19세기의 버슬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블랙 실크 가자 소재의 이브닝 드레스로 뒷 중심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허리선에 풍성하게 개더가 잡힌 스커트가 우아한 트레인으로 연결된다. 발렌시아가가 선호하는 소재인 가자의 사용으로 형태감을 유지하면서 심플한 앞면과 바로크적인 웅장한 뒷면이 극적인 조화를 이룬다.

발렌시아가는 타프타나 가자와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볼륨감 있는 형태를 도입하여 건축과 유사한 외형을 표현하였다⁵²⁾. 두께감이 있는 직물들은 발렌시아가로 하여금 하부 구조나 인체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구상한 형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18세기의 색 가운을 반영한 <그림 24>는 두께감이 있는 소재 그로 드 나플(gros de naple)을 사용하여 뒷 중심의 개더가 깊고 굵은 주름을 형성하여 풍성한 양감을 표현한다. 또한 신소재 ‘가자’를 사용하여 형태를 유지시킬

과 동시에 옆 솔기를 비스듬하게 뒤쪽으로 옮겨 솔기에 의해 절단될 수 있는 면을 3차원의 원뿔과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25>.

(3) 생동적 색감과 디테일

발렌시아가는 비비드한 컬러와 순색⁵³⁾, 스페인의 강렬한 태양에 의해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의 정서가 반영된 썬 블랙을 사용하였으며, 극적인 색감 매치를 통해 강렬함을 표현하였다. 또한 플라멩코 드레스의 러플장식과 화려한 색감, 꽃과 도트 무늬 패턴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스페인의 정열적이고 생동하는 취향과 연관되어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미니멀한 작품을 선보이면서 모든 불필요한 디테일을 제거한 발렌시아가의 디자인에서 색이 가지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는 그린, 레드, 블루와 같은 채도가 높은 컬러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유선형의 단순한 실루엣과 조화시켰다<그림 26>, <그림 27>.

또한 스페인의 강렬한 태양과 역사, 만틸라에서 온 블랙과 스페인 대지의 테라코타, 투우의 핏빛 버건디 컬러는 다른 컬러와 대조, 또는 단독으로 사용되어 깊고 강렬한 색채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림 28>은 어깨부터 시작된 블랙과 화이트의 컬러 블록이 풍성한 스커트 햄 라인까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 역동적인 운동감과 클래식함을 동시에



<그림 26> 비비드 그린 코트, 1963
(출처: 'Balenciaga', 2011, p.162)



<그림 27> 블루 울 코트, 1960
(출처: 'Balenciaga', 2011, p.141)



<그림 28> 블랙 앤 화이트 이브닝 드레스, 1939
(출처: <http://Cristobal Balenciaga museoa.com>)



<그림 29> 비비드 핑크의 이브닝 드레스, 1961
(출처: <http://collection.vam.ac.uk>)



<그림 30> 깊은 플라운스의 이브닝 드레스, 1963
(출처: <http://Cristobal Balenciaga museoa.com>)



<그림 31> 플라워 패턴의 칵테일 드레스, 196
(출처: 'Balenciaga', 2011, p.245)

표현하였다.

발렌시아가는 밝은 컬러에 꽃을 모티브로 한 패턴과 가볍고 유동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특히 플라멩코 드레스의 층층이 쌓인 러플, 낮은 허리선, 긴 트레인은 발렌시아가 디자인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이미지에 많은 영감을 제공하였다<그림 29>. <그림 30>은 플라멩코 드레스의 영향을 받았으나 플라멩코 드레스의 긴 트레인이 제거되고 대신 트레인이 나타내는 긴 사선적 이미지를 비대칭의 햄라인을 지닌 삼각뿔의 구조적 형태로 흡수시킨 드레스이다. <그림 31>은 1968년 발렌시아가의 마지막 작품으로 완벽한 재단과 단순화를 통해 플라멩코 드레스의 추상화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플라멩코 드레스의 러플을 깊은 플라운스의 소매로 병치시켰으며 안달루시아와 지중해의 낭만적인 정서를

다양한 톤의 핑크 플라워 패턴으로 형상화하였다.

IV. 결론

발렌시아가는 조형적으로는 간결하지만 깊이 있고 풍부한 예술성을 지닌 작품세계를 창조하여 50년대를 풍미한 디자이너이다. 발렌시아가 디자인의 미적 특성에 대한 여러 논의에서 그의 조국인 스페인과의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패션이 인간의 욕망을 표출시키는 매개체임과 동시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적 가치를 담아내는 “존재의 양식”이라면,⁵⁴⁾ 본 연구는 발렌시아가가 그의 디자인을 통해 표출한 미적인 아름다움의 근원을 스페인 취향을 통해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 되었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스페인 취향’을 부르디외가 ‘문화자본론’에서 정의한 ‘취향’의 개념을 국가에 대입하여, “스페인의 문화자본이 국민 내부에서 승화되어 개인, 지역, 국가의 기호 및 특성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나아가 스페인의 문화자본에 해당하는 역사·지역성과 민속 복식·예술·민족성을 통하여 화려성, 웅장성, 생동성, 문화적 다양성, 민족성이라는 스페인 취향의 보편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발렌시아가 디자인의 특성에서 수공예적 장식성, 구조적 형태, 그리고 비비드한 컬러와 유동적 디테일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특성이 스페인 취향의 화려성, 웅장성, 생동성과 긴밀하게 연관됨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발렌시아가의 디자인에 나타난 스페인 취향으로서 ‘화려한 장식성’, ‘웅장한 구조성’, ‘생동적 색감과 디테일’의 3가지를 도출하였다.

발렌시아가 디자인에서 ‘화려한 장식성’은 보석과 자수, 자개, 시퀸과 같이 빛나는 소재와 만틸라를 차용한 정교한 레이스 장식으로 표현되었다. 발렌시아가의 ‘웅장한 구조성’은 스페인 바로크의 분위기와 연관 지을 수 있으며 ‘과장’과 ‘환원’을 통해서 구현되었다. ‘과장’은 주름, 개더, 턱, 그리고 과장된 구의 형태로, ‘환원’은 스페인 전통 드레스를 근본으로 하는 형태적 순수함이 단순한 실루엣으로 표현되었다. 발렌시아가 디자인의 ‘생동적 색감과 디테일’은 유선형의 단순한 실루엣과 비비드 컬러와의 조화, 스페인 풍토에서 기인한 켓 블랙과 테라코타 컬러, 그리고 리풀을 비롯한 플라멩코 드레스의 조형적 특징의 차용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스페인 특유의 정열과 자유, 박진감을 나타낸다.

스페인 취향은 발렌시아가에게 내재된 무의식적 행동 체계로서 끊임없이 디자인적 영감을 제공하여 발렌시아가 디자인만의 깊이와 웅장함, 살아

있는 듯한 강렬함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패션의 흐름 속에 불변하는 조형적·예술적 아름다움을 창출한 발렌시아가 디자인을 그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해봄으로써 진정한 디자인의 의미와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각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과 디자이너의 디자인 정체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향후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광혜영 (2009). 발렌시아가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48.
- 이치영 (1996).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페인 민속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15.
- 이명희 (1994). 발렌시아가 작품의 구성원리와 기법, 응용과학논문집, 3(-). pp.139-153.
- Bowles, Hamish (2011). Balenciaga and Spain, New York: SkiraRizzoli. pp.1-256.
- 2) 이기문 (2008). 동아 새 국어사전(제5판), 서울: 두산동아, p.2339.
- 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원. 사전 편찬실 (2009). 한 국어대사전. 3, 자~중,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6287.
- 4) 김민수 (1997). 21세기 디자인 문화담사, 서울: 숲, p.179, 183.
- 5) Beardsley, Monroe C (1987). 이론과 실천, 이성훈, 안월혁 역, 서울: 미학사, p.205.
- 6) 송금옥, 김영인 (2005). 현대 패션에 표현된 취향 지향적 룩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 디자인학 연구, 복식, 62(-), p.167.
- 7) 김영인 (2006). 룩: 패션을 보는 아홉가지 시선, 파주: 교문사. pp.90-91.
- 8) 송금옥, 김영인. 앞의 책, p.198.
- 9) 이종호 (1999). 문화적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 부르디외의 문화 자본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 10) 송금옥, 김영인. 앞의 책, p.198.
- 11) 위의 책, p.198.
- 12) 서성은, 김민자 (2012). 글로벌 SPA브랜드에 나타난 국가별 미적 취향에 관한 연구, 복식, 62(8), p.31.
- 13) 이종호. 앞의 책, p.10.
- 14) Bourdieu, P. (2005). 구별짓기, 최종철 옮김, 서울: 새물결, p.13.
- 15) 송금옥, 김영인. 앞의 책, p.198.

- 16) 서성은, 김민자. 앞의 책, p.31.
- 17) 이강혁 (2003). 스페인 역사 100장면, 서울: 가람기획, p.14.
- 18) 안영욱 (2010). 스페인 문화의 이해,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p.23.
- 19) 이강혁. 앞의 책, p.15.
- 20) Snowden, James (1988). 유럽의 민속의상, 유태순 옮김, 서울: 경춘사, p.143.
- 21) 윤인영 (1994). 스페인 장식을 이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 22) 신승혜 (2003). <가자, 세계로> 스페인, 서울: 서울문화사, p.51.
- 23) Snowden, James. op. cit., p.138.
- 24) 윤인영. 앞의 책, p.19.
- 25) 이치영. 앞의 책, p.38.
- 26) 유태순 (2006). 세계 민속의상의 이해, 서울: 신정, p.128.
- 27) 선정희 (1998). 문화이식현상에서 나타난 민속의상: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복식, 41(-), p.141.
- 28) 이치영. 앞의 책, p.40.
- 29) 신승혜. 앞의 책, p.20.
- 30) 윤인영. 앞의 책, p.7.
- 31) 위의 책, p.7.
- 32) Bowles, Hamish. op. cit., p.186.
- 33) 안영욱. 앞의 책, p.311.
- 34) 서성은, 김민자. 앞의 책, p.33.
- 35) 안영욱. 앞의 책, p.313.
- 36) Arizzoli-Clémentel, Pierre, Arzalluz, Miren & Descalzo, Amalia (2011). Balenciaga, London: Thames & Hudson, p.15.
- 37) 곽혜영. 앞의 책, p.32.
- 38) Arizzoli-Clémentel, Pierre, Arzalluz, Miren & Descalzo, Amalia. op. cit., p.48.
- 39) 박명희, 장애란 (1995). 건축적인 의상디자인의 기초 학적 연구, 복식, 25(-), p.221.
- 40) 최경희 (2013). 산드라 백룬드의 컬렉션에 나타난 구조적 디자인 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3(3), p.5.
- 41) 곽혜영. 앞의 책, p. 63.
- 42) Bowles, Hamish. op. cit., p.5.
- 43) Walker, Myra (2006). Balenciaga and his Legacy, Haute Couture from the Texas Fashion Collec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21.
- 44) Wilcox, Clair (2009). The golden age of couture, London: V & A Publishing, p.152.
- 45) 곽혜영. 앞의 책, p.77.
- 46) 장애란 (1993). Balenciaga의 작품에 나타난 건축적인 형태미에 관한 연구, 복식, 21(-), p.10.
- 47) 곽혜영. 앞의 책, p.54.
- 48) Bowles, Hamish. op. cit., p.16.
- 49) 임은혁 (2006). 복식에 표현된 몸의 재현성과 비 재현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9.
- 50) Andre Jouve, Marie (1989). Balenciaga, London: Thames & Hudson, p.89.
- 51) 곽혜영. 앞의 책, p.36.
- 52) 장애란. 앞의 책, p.11.
- 53) 채도는 일정한 색조의 색에 있어서 회색의 함유량에 따라 정해지는데 회색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를 순색이라고 한다.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 1, 파주: 교문사, p.161.
- 54) 정기성 (2013). 현대 패션에 표현된 욕망의 미적 가치,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3(4), p.2.

Taste of Spain in Designs by Cristobal Balenciaga

Kim, Ki Sook · Park, Ju Hee⁺

Master,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how the emotional origin of the Cristobal Balenciaga brand, the 'taste of Spain', is adopted in his fashion design. After doing academic research on taste and the definition of 'the taste of Spain,' it was found that cultural capital provided by Spain sublimated to the people in Spain and then it expanded to become a regional preference and finally, the taste of Spain. Each feature of Spanish cultural capital such as history, local features, folk costume, art, and ethnicity were categorized. Hence, the taste of Spain was categorized as gorgeousness, magnificence, vibrancy, cultural diversity, and popularity. Balenciaga's designs, which are characterized by delicate decorations, structural silhouettes, vivid colors and fluid details, are closely linked to 'the taste of Spain', which is especially gorgeous, magnificent, and vibrant. Therefore, Balenciaga's designs are discussed from the point of view of; first, gorgeous decoration; Second, magnificent structure; and third, vibrant color and detail. This study is about the emotional beauty and artistic origin of Balenciaga's designs based on 'the taste of Spain' beyond just formative features.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source for follow-up studies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gners' cultural backgrounds and their design identities.

Key words: Balenciaga, taste of Spain, gorgeousness, magnificence, vividness.